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의 날이며 희세의 천출위인을 맞이한 혁명적대경사의 날입니다.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영광의 이날과 더불어 주체년호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사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변혁,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이 누리는 크나큰 행복과 영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태양절과 잇닿아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며 4월의 봄명절을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가장 큰 명절로 경축하고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온것은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끌어줄 운명의 구세주였습니다.

온 겨레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대대로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만경대가문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혈로를 개척하시는 나날에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주체의 신념을 지니시고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혁명의 닻을 올리신 그날로부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그 길에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과 세대와 세기를 이어갈 백두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존엄높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우리 제도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이름을 남긴 정치가,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적수공권으로 혁명을 시작하시여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이 끝없이 륭성번영할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다져놓으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령도자는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신것입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던 지난 세기 20년대의 현실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사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시대적과제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습니다.

태동하는 시대의 요구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실태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원리, 강력한 총대우에 민족의 자주독립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원리를 천명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끼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첫걸음부터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기성리론과 경험에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투쟁의 여러 단계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여 인류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시였습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으로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건설사상과 반제반미투쟁전략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오늘도 참된 삶과 정의,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습니다.

인류사상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혁명의 지도사상,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빛나는 승리와 거창한 현실로 전환시킨 가장 생명력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은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력자강의 거대한 동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초행길에서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시고 두차례의 간고한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복구건설,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풀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적후방도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자력자강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 혁명력사에 자강력승리의 첫 페지를 수놓으시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또다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앞에 시련과 난관이 조성될수록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시였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을 지니시고 부닥치는 난국을 맞받아 뚫고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빈터우에 인민이 주인된 민주의 새 나라가 일떠서고 전쟁의 혹심한 페허우에 자강력으로 솟구쳐오르는 영웅조선의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온갖 원쑤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질풍노도쳐 달렸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헤쳐오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창조된 자력자강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고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 천걸음으로 내달리게 하는 비약의 원동력이며 그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로 됩니다.

이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강행돌파하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었으며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속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승리,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는것입니다.

자력자강을 혁명승리의 보검, 부강번영의 전략으로 틀어쥐시고 주체혁명의 전 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강성번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마련하시고 후세에 물려주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전도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후손만대의 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 전국, 전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은 오늘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인민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집단주의위력을 최대로 발양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혁명무력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자라나 사회주의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 국가, 군대건설업적이 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종식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다져주시였으며 세계적인 정치동란과 경제파동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온 나라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화목하게 사는 일심단결의 사회주의,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철저히 구현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생활력이 검증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기상은 수억만인류를 새세기 사회주의운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최대의 애국위업,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높이시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나라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선도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주시였으며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시키시여 우리 혁명이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억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가장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시였습니다.

백두에서 휘날리던 주체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습니다.

참으로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온 김일성민족의 영광스러운 행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계속혁명의 기치높이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건설과 국가건설, 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감으로써 날로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과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난관이 천겹만겹으로 덧쌓인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속에 쪼아박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백두에서 창조된 단결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감으로써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자기가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림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진행되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이 땅우에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적이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폭풍쳐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1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박태성동지, 김능오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당위원장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윤길상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중앙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노도쳐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날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정치보도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세계 여러 나라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리길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오가미 겡이찌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체쑤 꼬호비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이에마사지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 공동대표에게 친선훈장 제2급이, 7명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친선메달이 각각 수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을 위하여 14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류명선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